



고수

“경제 공부하는 선택 아닌 필수”

신문에 나오는 경제 뉴스는 난해한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거나 좋지 못한 소식만 가득해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 경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떨까? tvN 새 수목극 ‘머니게임’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배우 고수(42)는 국가 최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채이현’을 연기한다. 고수는 8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기재부나 금융위라는 기관의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뭐 하는 곳인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이 기관들이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에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드라마가 생소한 분야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경제 공부는 선택 아닌 필수였다. 심은경(26)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용어를 읽는 법부터 익혔다”고 했다. 고수는 “처음엔 (내용이 어려워) 머



이성민

“무조건 출연했다 뒤늦게 열공”

tvN 새 수목극 ‘머니게임’ 15일 첫 방송

론스타 외환은행 ‘떡튀’ 사건 기반...금융위 등 관료들 이야기 세 배우의 연기력 따라가다 보면 경제용어까지 공부하는 효과

릿속이 많이 복잡했다. 배경지식이 되는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다. 유튜브와 책을 자주 봤던 것 같고, 대본이 많은 부분 미리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대본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배우 이성민(52)과 심은경은 ‘머니게임’으로 각각 5년, 6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다. 이성민은 야심 넘치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허재’ 역을, 심은경은 근성 넘치는 휴스저 출신의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혜준’ 역으로 분한다. 이성민은 “대본을 읽어보지 않고 출연

을 결정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출을 맡은 김상호 PD와 과거 많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대본을 받고 나서 ‘더 읽어보고 할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이번 작품은 김상호 PD 스타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작업하면서 김 PD의 새로운 면을 봤다. 예상과 다르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서 이 작품 선택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후에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심은경은 “최근 경제를 잘 다룬 드라마는 ‘머니게임’이 처음인 것 같다. 거기서



심은경

“인간에 대한 성찰에 흥미”

흥미를 느꼈다”며 “촬영하면서도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드라마에서 결국 다루지는 건 인간에 대한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머니게임’ 연출은 ‘아랑사또전’, ‘화정’ 등을 연출한 김상호 PD가 맡았다. 김 PD는 “실제 론스타 ‘떡튀’ 사건(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하나금융에 매각하며 4조원 넘는 이익을 챙긴 사건)을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소재에 대해선 “당연히 어렵다. 진입장벽을 피하지 않았다”면서 “무기는 연기력이다. 세 배우의 연기력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웠던 경제 용어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드라마도 보고 경제 용어도 공부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며 웃었다. 오는 15일 밤 9시 30분 tvN 첫 방송. /연합뉴스

BTS 새 앨범 베일 벗는다...2월 21일 컴백

제목은 ‘맵 오브 더 솔 : 7’...10개월만에 발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 달 21일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8일 오전 0시 팬 커뮤니티 ‘BTS 위버스’ 공지를 통해 “오는 2월 21일 BTS ‘맵 오브 더 솔 : 7’ (MAP OF THE SOUL : 7)이 발매된다”고 알렸다. 빅히트는 9일부터 예약구매가 진행되는 “앨범 발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BTS 위버스와 팬카페 공지로 안내된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지난해 말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주최 시상식에서 “좋은 소식은 우리가 새로운 음악, 새로운 앨범을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내기는 지난해 4월 ‘맵 오브 더 솔’ 연작의 첫 앨범인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방탄소년단 신보에 세계적인 반향이 예



지난달 3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새해맞이 라이브 무대를 펼친 BTS.

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또다시 어떤 기록을 탄생시킬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작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는 369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가온차트가 201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며 국외에서도 각종 굵직한 기록을 남겼다. ‘맵 오브 더 솔’ 연작을 통해 ‘자아 찾기’라는 목적인 주제 의식을 전하는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 앨범에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지도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JTBC 내달 개편... ‘트레블러-아르헨티나’ 등 예능 출범

JTBC가 다음 달부터 주말 저녁 시간대 예능 2편을 추가 편성하는 개편을 단행한다. JTBC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중 2편, 주말 새 슬롯에 편성되는 2편을 포함해 총 4편의 신규 예능을 2월부터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말 오후 7시 40분에는 ‘트레블러-아르헨티나’와 ‘유랑마켓’이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편성된다. ‘트레블러-아르헨티나’는 다음 달 15일에, ‘유랑마켓’은 다음 달 16일에 방송을 시작한다. 작년 방송한 ‘트레블러-쿠바’ 후속편에 해당하는 ‘트레블러-아르헨티나’는 배우 강하늘과 안재홍, 워너원 출신 오성우가 출연하는 여행 예능이다.

‘유랑마켓’은 스타가 자신의 물건을 직접 동네 주민과 거래하며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장운정, 서장훈, 유세윤이 진행을 맡았다. 주말 저녁 시간대에 이들 예능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주말 ‘뉴스룸’은 다음 달 15일부터 방송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오후 6시 55분으로 변경한다. 평일 밤 11시에 편성되는 예능 2편은 ‘77억의 사랑’과 ‘돈길만 걸어요-정산회담’이다. 다음 달 10일 처음 방송되는 ‘77억의 사랑’은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을 대표하는 각국 청춘남녀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다음 달 11일 시작하는 ‘정산회담’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난장토론’을 벌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00 99억의 여자(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두 번은 없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특 보험설계
[1]	00 신년기획 사랑의 가족 50 KBS 재년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테레투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발 콩순이와 친구들 5 55 숲속 친구 스토리즈			
[3]	10 다큐세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뽀모도야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0 나쁜사랑(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도토리-갤럭시세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양코리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집사부일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스포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스페셜	45 나이트라인

EBS1

07:00 출동! 슈퍼핑크	13:00 다큐 시선	18:00 꾸러기 천사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렛
08:00 똥동맹 유치원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0 출동! 슈퍼핑크(재)	20:30 자이언트 펭TV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울리 앤 로	15:55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재)	〈발걸음마다 새로운, 유카탄 반도 -신이 내린 선물〉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맛나다, 겨울 주전부리 4부 입이 떡, 맛이 떡〉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다큐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2:10 팻하트	17:45 울리 앤 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9일(음 12월 15일 辛亥)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48년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60년생 사세가 종합적으로 집약된다면 능률적이다. 72년생 오랜만에 만나서 화포를 푸는 기분 시간을 나누리라. 84년생 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줄줄 새고 있으니라. 96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원할해질 수 없다. 행운의 숫자 : 61, 37</p>	<p>午</p> <p>42년생 재미있게 되어가는 형세로다. 54년생 본격적인 궤도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66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야 안다. 78년생 한 번 놓친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90년생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거늘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02년생 창의성과 개성의 발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27, 69</p>
<p>丑</p> <p>37년생 실제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49년생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1년생 상서로운 빛이 비치지 길한 조건으로 봐도 된다. 73년생 동시에 처리 될 것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잘 살펴라. 85년생 김레가 거침없이 펼쳐지리라. 97년생 정도를 걸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71, 10</p>	<p>未</p> <p>31년생 잠시 주춤했다가 본격도로 진입 하리라. 43년생 합리성이 풍요로움을 도모하게 된다. 55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67년생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진보하게 되느니라. 79년생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91년생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면 불행함이 사라지리라. 행운의 숫자 : 30, 17</p>
<p>寅</p> <p>38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0년생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62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74년생 오히려 인한 시비가 보인다. 86년생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98년생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행운의 숫자 : 91, 77</p>	<p>申</p> <p>33년생 코스를 이탈하면 고생길만 환할 뿐이다. 45년생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버리겠다. 57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라. 69년생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81년생 흥왕의 기운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으니라. 93년생 전부이거나 전무의 상황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82, 22</p>
<p>卯</p> <p>40년생 활용 가치를 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52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주 접하다보면 능숙해질 수밖에 없다. 64년생 안전 점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니라. 76년생 처음부터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88년생 정도의 차이가 심하여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 00년생 앞뜰한 생활 자세가 견고한 삶의 기반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0, 75</p>	<p>酉</p> <p>34년생 기준이 단순하다면 오류가 따른다. 46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8년생 마음먹은 대로 임의적으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70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허점을 날게 할 수다. 82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94년생 흥미를 지어내기에 충분하리라. 행운의 숫자 : 04, 94</p>
<p>辰</p> <p>41년생 비슷한 처지여서 쉽게 공감 하리라. 53년생 의사 표시가 정확해야만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65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77년생 임시 위상이니 부담 없이 임해도 된다. 89년생 고난은 미래를 여는 훈련장이 되리라. 01년생 행한 만큼에 비례해서 실리가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43, 74</p>	<p>戌</p> <p>35년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중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 47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59년생 시시각각 변하는 위상이니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71년생 선의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83년생 검증된 계획이아니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95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다. 행운의 숫자 : 72, 15</p>